

성인기의 연령증가와 상황평가에 따른 대처행동 양식의 차이

김 애 순 · 윤 진

인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인기에 있어서 연령증가와 개인이 처한 상황 및 상황평가가 개인의 대처행동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피험자들은 25~39세의 젊은 여성 100명과 50~65세의 나이든 여성 100명이다. 모든 피험자들은 자신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하나의 사건에 대한 보고, 상황분류, 상황평가 그리고 대처행동보고의 4단계로 되어 있는 질문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개인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령과 상황효과가 분석되었으며, 스트레스의 정도, 문제발생에 대한 통제소재 및 상황통제력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대처행동과의 상관관계가 분석되었다. 대처행동은 능동, 수동 그리고 신비적인 3가지의 대처행동양식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험자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동적인 행동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신비적인 행동은 증가했으며 특히 상실상황에서는 더욱 증가했다.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도전상황에서는 능동적인 행동이 증가했고 상실 또는 위협상황에서는 신비적인 행동이 증가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록 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평가할 수록 신비적인 행동이 증가했다.

성격(personality)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지만, "성격이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개인의 독특한 행동양식"이란 Darley, Glucksberg, Kamin과 Kinchla(1981)의 주장이 가장 통합적인 정의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 즉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행동양식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가 아니면 지속적인가? 변화한다면 그것은 성숙적인 변화인가 또는 퇴행적인 변화인가? 변화의 원인이 진정으로 연령증가에 있는가? 이와같은 문제들은 많은 성인발달 및 노년 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이유는 연령증가 혹은 노화과정은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과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기력(vigor), 기동력(mobility)등의 감퇴와 더불어 지각, 감각, 및 인지적 능력이 감퇴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 욕구, 그리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이미지도 자아개념의 일부분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사회적 역

할과 과업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의 출가, 부모의 죽음, 은퇴 그리고 배우자의 죽음 등 다양한 외적 사건의 변화는 개인의 신념, 가치, 자아정체감등에 변화를 가져온다(McCrae & Costa, 1984). 따라서 연령 증가에서 오는 이러한 다양한 개인변인의 변화는 개인이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행동양식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령증가에 따른 행동양식의 변화여부를 밝히고자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그 연구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연구방법의 종류--단기 횡단 연구 혹은 장기 종단 연구 및 시기차이법--에 따라 연구결과가 차이가 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성격이론에서의 견해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연령증가에 따른 행동양식의 변화연구에 적용된 성격이론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연구의 흐름을 그 이론적 배경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성격특질이론가들은 개인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기질적인 요인(성격특성)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필식 성격검사와 같은 심리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행동양식의 변화여부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연령과 상황변화에 관계없이 행동양식은 상당한 정도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예:Costa와 McCrae, 1980, Siegler, George와 Okun, 1979).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를 연령증가에 따른 행동양식의 지속성에 대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단편적인 특질측정에 의해서 다면성의 행동을 예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정신역동이론가들은 개인의 동기와 욕구, 기질, 습관, 능력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조직되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과정이 있으며 이 자아과정은 개인의 연령증가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투사법을 이용하여 무의식적인 반응속에서 동기나 욕구, 갈등 및 방어행동을 추론해 냄으로써 연령증가에 따른 행동양식의 변화여부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써, TAT측정방법을 사용한 Gutmann(1964, 1967)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이 환경을 통제해나가는 자아통제방식(Ego Mastery Style)이 능동에서 수동 또는 신비적으로 변화해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피험자의 무의식적인 반응 속에서 동기나 자기정의, 가치 또는 사고방식에 대한 추론을 했을 뿐, 상황변인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생활 속에서 피험자들의 행동경향성을 예언해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셋째, 그러나 최근의 인지론자들은 개인이 환경자극을 지각하고 조직하는 인지적 과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았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의 행동은 기질이나 동기, 욕구와 같은 개인적 변인에 의해서 뿐만아니라, 다양한 개인변인과 상황변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연령과 상황변화에 따라 행동은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실제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험적인 사건에 대처하는 행동을 연구함으로써 연령증가에 따른 개인의 행동변화여부를 예언하려 하고 있다. 최근에 Folkman과 Lazarus(1980)는 40~60세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처행동 연구를 통해 연령증가에 따른 대처행동의 변화는 밝히지 못했지만, 개인이 경험한 사건의 종류와 개인의 상황통제력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McCrae(1984)의 연구에서도 연령증가에 따른 대처기제 사용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이 처한 상황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상실과 위협상황에서는 믿음, 운명론, 비현실적 사고 등의 대처기제가 사용되었으며, 도전상황에서는 이성적 행동, 긍정적 사고등의 대처기제가 사용되었다.

이와같은 연구의 흐름에 따라, 최근에 Folkman과 Lazarus(1980, 1984)는 인지현상학적 입장에서 대처행동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대처행동(Coping Behavior)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과정이며, 이 역동적 과정은 개인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의해서 매개된다. 이러한 인지적 평가에는 1차적 평가와 2차적 평가가 있는데, 1차적 평가란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복리와 관련 지어서 상실, 위협, 그리고 도전상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상실상황(Loss)은 이미 상처나 피해를 받은 경우이며, 위협상황(Threat)이란 상실이나 피해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할 때를 말한다. 그리고 도전상황(Challenge)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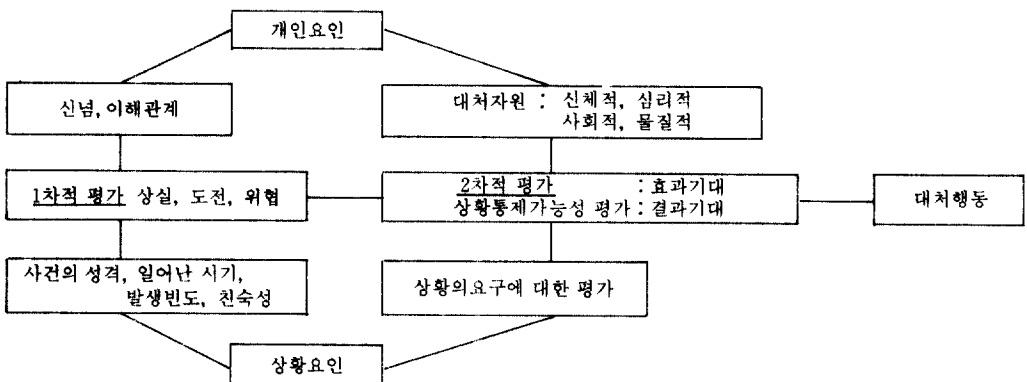


그림1. 대처행동에 대한 인지현상학적 접근

개인이 처한 상황이 자신의 성장, 통제 또는 획득의 기회로 생각될 때를 말한다. 또한 2차적 평가란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자원이 갖추어져 있는가, 과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이와같은 인지현상학적 이론에 의한 대처과정을 도표로 표시하면 그림1과 같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아통제방식(Ego-mastery style)의 변화에 대한 Gutmann의 가설에 근거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이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행동양식이 능동에서 수동 또는 신비적으로 변화해가는가를 파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대처행동에는 개인요인과 상황요인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의 대처행동이론과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변인과 상황변인을 동시에 고려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연령증가와 개인이 처한 상황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또한 상황에 따라 연령효과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과 상황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대처행동이 인지적인 중개변인에 의해서 어떻게 매개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내리는 3가지의 인지적인 상황평가와 대처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능동적인 행동은 감소하고 수동 또는 신비적인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연령효과)
- 둘째, 연령에 관계없이, 도전상황에서는 능동적인 행동이 증가할 것이며, 상실이나 위협상황에서는 수동 또는 신비적인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상황효과)
- 셋째, 연령증가에 따른 대처행동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상실, 위협상황에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 보다 수동 또는 신비적 대처행동이 증가할 것이며, 도전상황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연령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
- 넷째, 대처행동에서의 차이는 실제로 인지적인 상황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인지적 상황평가와 대처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인은 개인의 연령과 개인이 처한 상

황이다. 연령분류는 윤진(1985)의 인생주기 진행도를 참조하여 개인의 인생단계에 따른 역할변화에 따라 1) 자녀출산, 자녀성장기(25~39세), 2) 자녀출가, 은퇴기(50~65세)의 2집단으로 분류하며, 편의상 25~39세를 젊은층, 50~65세를 나이든층으로 명명한다. 상황은 피험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상실, 위협 그리고 도전의 3가지 상황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종속변인은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처행동양식이다. 상황에 대한 평가는 스트레스의 정도, 사건발생에 대한 통제소재, 그리고 사건해결에 대한 통제력의 3가지 인지적인 상황평가를 측정한다. 또한 대처행동양식은 능동, 수동, 그리고 신비적인 3가지 유형을 측정하되, 능동-수동은 단일한 차원에서 측정하며, 신비적인 행동은 분리하여 측정한다. 여기서 능동적인 대처행동(active mastery)이란 외적사건을 능동적으로 통제하므로써 성취와 독립을 추구하는 행동이며, 수동적인 대처행동(passive mastery)이란 외적사건을 변화시키기 보다 자기 자신을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외부세계에 순응 또는 타협하려는 행동이다. 그리고 신비적 대처행동(magical mastery)이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나 노력을 하기 보다는 모든것을 신비나 우연에 내 맡기려하는 행동이다. 또한 자신의 안전과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단적·도구적 행동보다는 투사(投射)와

표1. 응답자의 배경자료

| 배경 | | 젊은층 (n=100) | 나이든층 (n=100) |
|----|----------|----------------|-----------------|
| 성별 | 중 | | 19 명 |
| | 고 | 36 명 | 39 |
| | 대 | 64 | 42 |
| 종교 | 유 | 76 | 74 |
| | 무 | 23 | 26 |
| 경제 | 부유하다 | 3 | 16 |
| | 보통이다 | 97 | 84 |
| 수입 | 30-60만원 | 36 | 35 |
| | 60-100만원 | 45 | 29 |
| | 100만원이상 | 19 | 36 |
| 건강 | 건강하다 | 56 | 39 |
| | 하다 | 33 | 44 |
| | 건강하지 못하다 | 11 | 17 |
| 결혼 | 동거 | 93 | 83 |
| | 별거, 이혼 | 1 | 2 |
| | 관계 | 3 | 15 |
| 관계 | 사별 | | |
| | 기타 | 4 | |

같은 퇴행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Gutmann, 1967)

연구방법

피험자.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경제적 수준이 중·상층(월 평균 수입이 30만원 이상)인 성인여성들로서 교육수준은 젊은층이 고졸이상 나이든층이 중졸이상인 자들을 비 확률적 표집방법 중 할당 표집방법(quota sampling)에 의하여 두 집단에 각각 100명씩 표집하였다. 연령범위는 25~39세와 50~65세의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평균연령은 각각 34.89세(SD=3.45), 53.38세(SD=3.88)이었다.

응답자들의 배경은 학력, 종교, 경제, 수입, 건강, 결혼관계등이 조사되었으며 그 자료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이 배경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력($\chi^2(1)=9.76, p<.01$), 경제($\chi^2(1)=9.72, p<.01$), 수입($\chi^2(2)=8.69, p<.05$), 결혼관계($\chi^2(3)=12.89, p<.01$)에서는 2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젊은 집단이 나이든 층보다 고학력자가 많았으며 경제적으로는 나이든 층이 보다 부유하거나 고소득인 자가 많았다. 또한 나이든 층이 사별한 자가 많아 부부동거율이 낮았다. 그러나 종교의 유무($\chi^2(1)=0.22$), 건강($\chi^2(2)=3.1$)등은 2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측정도구의 제작과정.

대처행동에 대한 선행연구(McCrae, 1984a; Folkman & Lazarus, 1980; Perlin & Schooler, 1978; Billing & Moos, 1984)를 참조하여 방어기제, 문제 해결기능, 정서적기능 그리고 신비적 사고 등을 포함한 70개의 대처행동 문항을 작성한 다음, 13명의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이들 70개의 문항을 Gutmann의 능동·수동·신비의 3가지 자아통제방식유목으로 분류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이 분류된 70개의 문항들이 각 자아통제방식을 대표하기에 적합한지 그 적합성의 정도를 50명의 전문적인 평정자(정신과 의사: 12명, 상담·임상심리전문가: 13명, 상담·임상심리 전공 대학원생: 25명)들로 하여금 5점 척도위에 평정하게 하여, 평정결과 $M>4.0$, $SD<1.0$ 인 문항만 총 30개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대처기능측정도구는 능동, 수동, 그리고 신비적인 대처행동을 기술한 문항이 각각 10개씩 들어 있는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0-4) 척도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능동적인 대처행동과 수동적인 대처행동은 단일한 차원(uni-dimension)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동문항은 능동문항과 역으로 배점이 되었다. 따라서 능동문항과 수동문항의 총 20개 문항에 대한 점수의 합이 능동-수동 점수가 되었는데 만점은 80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능동적이라고 평가되었고, 점수가 낮을수록 수동적이라고 평가되었다. 또한 신비적인 대처행동점수는 10개의 신비적 행동문항에 대한 합이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신비적이라고 평가되었으며, 만점은 40점이었다.

질문지.

본 질문지는 경험한 사건에 대한 보고 및 분류/상황분류/상황에 대한 3가지 인지적 평가/대처행동보고의 4단계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들은 지난 1년동안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중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사건을 한가지 보고하고, 그 사건을 1 가족관계, 2 경제, 3 건강, 4 직업, 5 자녀교육의 5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그리고 자신의 주관적 상황평가에 의하여 그때의 상황을 상실, 위협 그리고 도전의 3가지 상황중 어느 한가지 상황으로 분류한 다음, 피험자가 지각한 스트레스의 정도(5점 척도)와 문제발생 원인에 대한 통제의 소재(4점 척도),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자기자신의 통제력(4점 척도)을 각각 평가한다. 그 다음에 5점 척도로 되어있는 30개의 대처행동 문항에 그때 자신이 취한 행동을 보고한다.

자료분석방안.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1) 연령과 상황에 대한 효과: 연령(2)×(상황(3)의 2 요인 설계(two-factor design) 방안에 의해서 연령과 상황에 대한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변량분석하였다. 변량 분석 결과, 연령과 상황에 대한 주효과가 나타난 경우엔, 사후 검증 절차로써 수정된 Tukey 검증과 Scheffe검증을 실시하여, 각 상황내에서의 유의미한 연령효과와, 상황간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2)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상황평가와 대처행동과의 관계: 스트레스의 정도, 문제발생에 대한 통제소재 그리고 문제해결에 대한 통제력의 3가지 인지적 상황평가와 대처행동(능동-수동, 신비) 과의 상관관계(Pearson r)를 분석하였다. 3) 사건유형에 대한 분석: 연령집단 별로 보고된 사건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향은 χ^2 검증을 했

다.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사건유형에 따라 능동-수동 및 신비적 대처행동 점수의 평균치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했으며, 사건유형별로 두 연령 집단간의 대처 행동 평균치에 대한 t검증을 실시했다.

결과

능동-수동 대처행동.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능동-수동 대처행동점수의 평균치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 두 연령집단간의 평균치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미수준에 미치지 못했다($F(1,194)=3.399$). 그러므로 연령증가에 따라 수동성은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서는 대처행동 양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F(2,194)=7.534, p < 0.001$). 따라서 Scheffé의 사후 검증 절차에 의해서 상황간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도전상황($M=44.60$)에서는 상실($M=39.09$) 또는 위협($M=41.14$)상황보다 능동-수동 대처행동점수의 평균치가 높았는데, 이 상황간 평균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2,194)=7.2372, p < 0.05$). 즉 도전상황에서는 상실 또는 위협상황보다 능동적인 대처행동이 더 많았다.

또한 각 상황별로 두 연령 집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상실과 위협상황에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능동-수동 대처행동점수의 평균치가 낮게 나타났으나, 도전상황에서는 두 연령집단간의 평균치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과 상황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F(4,194)=838$). 즉 연령증가에 따른 대처행동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표2를 참조할 것).

신비적 대처행동.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연령이 높은 집단이 더 높은 신비적 대처행동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두 연령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194)=9.236, p < .01$). 따라서 사후검증절차로써 S-pjotvolla and Stoline에 의해 수정된 Tukey 검증(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연령집단간 신비적인 대처행동 점수의 차이는 상실상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91)=6.55, p < .01$), 위협, 도전상황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위협: $F(2,62)=1.4067$, 도

전: $F(2,44)=1.6173$). 즉 상실상황에서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비적인 행동이 증가했다.

그런데 신비적인 대처행동점수도 역시 각 상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194)=10.874, p < .0001$). 따라서 사후검증절차로써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관계없이 위협($M=16.10$) 및 상실상황($M=14.88$)에서는 도전상황($M=10.71$)보다 신비적인 대처행동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F(2,194)=9.57, p < .05$). 그러므로 위협 또는 상실상황에서는 도전상황보다 신비적인 대처행동이 더 많았다.

또한 각 상황별로 두 연령집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상실, 위협 그리고 도전의 3가지 상황에서 모두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신비적인 대처행동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연령과 상황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F(4,194)=383$)(표2를 참조할 것).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령에 대한 주효과는 신비적인 대처행동에서만 나타났으며, 상황에 대한 주효과는 두가지 대처행동점수에서 모두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첫째"의 일부분과 가설 "둘째"가 지지된 셈이다. 그러나 두가지 대처행동점수에서 연령과 상황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셋째"는 지지되지 못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동성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신비적인 행동은 증가했는데 특히 상실상황에서는 더욱 증가

표2. 연령과 상황에 따른 두 연령집단의 대처행동 평균치 차이

| 응답자 상황 | 대처행동의 유형 | | | | | |
|-----------|------------------|------------------|------------------|------------------|--------------------|-------------------|
| | 능동-수동 대처행동 | | | 신비적 대처행동 | | |
| | 젊은층 | 나이든층 | 합계 | 젊은층 | 나이든층 | 합계 |
| 상실 | 40.49 (N=45) | 37.74 (N=47) | 39.09 (N=92) | 13.04 (N=45) | 16.64** (N=47) | 14.88* (N=92) |
| 위협 | 42.49 (N=35) | 39.46 (N=28) | 41.14 (N=63) | 15.29 (N=35) | 17.11 (N=28) | 16.10** (N=63) |
| 도전 | 44.25 (N=20) | 44.88 (N=25) | 44.60* (N=45) | 9.40 (N=20) | 11.76 (N=25) | 10.71 (N=45) |
| 합계 | 41.94 (N=100) | 40.01 (N=100) | | 13.10 (N=100) | 15.55** (N=100) | |

** $p < .01$ * $p < .05$

했다.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도전상황에서는 능동적 대처 행동이 증가했으며 상실 및 위협상황에서는 수동 또는 신비적인 대처행동이 증가했다.

상황평가와 대처행동과의 상관관계.

스트레스의 정도와 능동-수동 대처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나, 신비적인 대처행동과는 약한 정적인상관($r=.23362$)이 있었다. 또한 상황통제력과 능동적인 대처 행동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신비적인 대처행동과는 부적상관($r=-.17686$)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발생에 대한 통제 소재와 대처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즉,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신비적인 대처행동이 증가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할수록 더욱 신비적인 대처행동이 증가했다 (표3을 참조할 것).

표3. 상황평가와 대처 행동과의 상관관계

| 상 황 평 가 | 능동-수동 | 신 비 |
|-----------------|--------|-----------|
| 스트레스의 정도 | .01321 | .23362*** |
| 문제 해결에 대한 통제력 | .08530 | -.17686** |
| 문제 발생에 대한 통제 소재 | .02840 | .06767 |

** $p < .01$ *** $p < .001$

그 이외의 발견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피험자들이 경험하는 사건의 종류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에서는 가족관계와 관계된 일이 가장 많았으나(42%), 나이든 층에서는 자녀교육과 관계된 사건이 증가하고 있었으며(30대:11%, 50대:24%), 이와같은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chi^2(4)=10.49, p<.05$). 또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연령집단에 따라 상황분류가 달랐는데, 예를들면 위협상황으로 분류된 사건중에는 30대는 결혼 및 가족관계 또는 건강과 관계된 일이 많았으나(31%), 50대에서는 경제 및 건강과 관계된 일이 많았으며(39%, 36%) 결혼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 일은 17.1%에 불과했다($\chi^2(4)=47.62, p<.001$). 또한 경제적 사건에 부딪혔을 때는 50대는 보다 수동 또는 신비적 대처행동이 증가했으나($t(42)=-3.90, p<.001$), 30대는 보다 능동적인 대처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에 관계없이 사건의 유형에 따라 능동-수동 및 신비적 대처행동 점수 차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비적 대처행동점수에서

는 각 사건의 유형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F(4)=1.6304$), 능동-수동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견되었다. ($F(4)=3.0275, p<.05$). 그러나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어떤 특별한 두가지 사건유형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논의

Gutmann은 면접법과 투사법 연구(1964, 1967)를 통하여 개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을 조절하고 통제해 나가는 자아통제방식(Ego-Mastery Style)이 능동에서 수동 또는 신비적으로 변화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Folkmann과 Lazarus(1980) 또는 McCrae(1982)등의 대처행동연구결과에서는 연령증가에 따른 대처행동양식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상황에 따라 대처행동이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같은 두가지 이론들을 그 일부분만 지지해 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실 또는 위협 상황에서 수동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이러한 수동성의 증가는 통계적인 유의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는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경제적, 교육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었기 때문에 연령증가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물질적인 자원의 변화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응답자의 배경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학력, 결혼관계, 경제 등에서 2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젊은층이 나이든층보다 고학력자가 많고, 부부동거율이 높았으나 경제적 수준은 나이든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자원이 연령증가에 따른 대처행동변화에 중요한 변인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투사법 연구에 의한 Gutmann의 자아통제 방식에 대한 가설은 연령증가에 따른 동기나 사고방식과 같은 내면적인 변화를 설명해 줄 뿐이지 상황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실제의 행동을 예언해 주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신비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실상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와같은 결과는 Gutmann의 주장을 지지해 주고 있으나, 연령증가에 따른 행동양식의 변화를 생애적이고 발달적인 계열(developmental-sequence)

에 따라 설명하고자 하는 Gutmann의 가설과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 하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동적인 행동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신비적인 행동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Gutmann(1967)의 연구에서는 65세 이후의 피험자에 있어서 신비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50대 초반이면서도 신비적인 행동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실은 동·서양의 문화적·관습적인 차이가 생애적인 발달의 순서나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서구사회가 남·녀평등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인 반면에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윤리와 가부장적인 제도가 강조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한국여성들은 삶에서 느끼는 모순과 갈등을 무속적 수단인 굿을 통하여 해소해 왔다(조혜정, 1986). 이러한 사실은 한국여성들이 비현실적이고 신비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 현실에 적응해 왔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출생동시집단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cohort effect)나 성별에 따른 차이, 학력, 결혼관계 또는 종교적인 영향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50대가 전통적인 사회에서 성장시기를 보낸 6.25 이전 세대라면 30대는 서구문명의 영향속에서 성장시기를 보낸 6.25 이후의 세대라는 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모두 여성이었으며, 70% 이상이 종교를 가진 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세째, 연령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대처행동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McCrae(1984a)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상황분류를 피험자의 주관적 상황평가에 의존했기 때문에 Folkmann(1984)의 대처행동이론에서 말하는 1차적 상황평가에 해당하며, 이 1차적 상황평가가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건이나 문제발생의 통제소재(I-E Locus of control)와 대처행동과는 상관성이 없었으나, 스트레스의 정도와 상황 통제력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통제기대 보다는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Folkmann(1984)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발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건유형에 따라서는 대처행동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연령이나 사건의 유형과 같은 단일한 개인변인이나 상황변인에 의해서 행동이 예언될 수 있다기보다는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1차적 상황평가와 2차적 상황평가의 인지적 변인들이 더욱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Folkmann과 Lazarus의 대처행동이론을 지지

해 주고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피험자들이 경험하는 사건의 종류가 변화하고 있다. 즉, 젊었을 때는 결혼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경험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사건은 줄어들고 건강 및 자녀교육과 관련된 사건이 증가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 또는 직업과 관련된 사건은 감소하고 건강과 관련된 사건이 증가한다는 Folkmann과 Lazarus(198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전적인 사건은 감소하고 위협적인 사건은 증가한다는 McCrae(1982)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때, 자녀양육이 보다 일찍 끝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는 서구 여성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50대 초반까지도 자녀교육이나 자녀결혼에서 오는 경제적 문제등이 도전적인 사건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증가에 따른 수동성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신비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연령증가에 따른 개인의 대처행동양식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행동양식의 변화는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더욱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즉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실적인 상황으로 평가했을 경우에 연령에 따른 대처행동양식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연령증가에 따른 행동양식의 변화를 생애적이고 발달적인 변화라는 입장에서, 성숙적인 혹은 퇴행적인 변화라고 평가적인 차원에서 방향지우기 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내적 및 외적요구에 적용하려는 행동노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피험자들이 서울시내에 거주한 경제 및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30개의 행동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위에 강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체크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는 자신의 행동과 전혀 상관없는 문항에도 응답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단일한 차원에서 측정된 능동-수동 점수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처행동에 대한 보고를 주관적 행동관찰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하며 문항수가 많은 check list를 사용하여 행동의 빈도를 관찰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처행동척도는 전문가평정에 의존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엄격한 심리측정적 방법

을 통하여 척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 특히 50대가 경제적·교육적 수준이 너무 높은 집단이었으며, 또한 30대와 50대 초반이라는 연령의 폭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충분한 연령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결과와 추세로 보아서 앞으로의 연구는 경제적·교육적 수준이 낮은 집단이나 70세 이상의 연령이 보다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한 연구를 통하여 충분한 연령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네째,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대처행동의 차이와 개인의 인지적 상황평가 과정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했으나, 이러한 인지적 평가과정 중 어디에서 연령차이가 나는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피험자들이 경험하는 사건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집단의 1차적 상황평가를 비교할 수가 없었으며, 또한 2차적 상황평가 역시 각 상황에 분류된 피험자 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을 달리하여 대처행동에 이르는 인지적 평가과정 중 어디에서 연령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령증가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자원의 변화나 자녀성장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남녀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처행동의 변화에 대한 남녀의 성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같은 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성격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내적 관여를 깊이 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평생 발달과 노화과정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 참여하려는 자원피험자들을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 윤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조혜정(1986).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 **한국여성학**, 3집, 81-125, 서울: 한국여성학회
- Billing, A.G. & Moos, R.H.(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 Costa, P.T., Jr., McCrae, R.R. & Arenberg, D.(1980). Enduring dispositions in adult m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793-800.
- Darley, J.M., Glucksberg, S., Kamin, L.J., & Kinchla, R.A.(1981).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 Folkman, S.(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39-852.
- Folkman, S. & Lazarus R.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Gutmann, D.L.(1964). An exploration of ego configurations in middle and later life. In B.L. Neugarten(Ed.), *Personality in middle and later life*. New York: Atherton.
- Gutman, D.L.(1967). Aging among the Highland Maya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28-35.
- McCrae, R.R.(1982). Age differences in the use of coping mechanisms. *Journal of Gerontology*, 37, 454-460.
- McCrae, R.R.(1984a).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oping responses: Loss, threat, and challe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19-928.
- McCrae, R.R., & Costa, P.T., Jr.(1984). *Emerging lives, enduring dispositions*. Boston and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 Pearlin, L.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Siegler, I.C., George, L.K., & Okun, M.A.(1979) Cross-sequential analysis of persona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50-351.

원고 초본 접수 : 1987. 5. 7

최종 수정본 접수 : 1987. 7. 30

**Differences in Coping Style as a Function of Age and
Situational Determinants in Adulthood**

Ae-Soon Kim and Gene Yoo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coping responses according to individual's age and her situational appraisal of events in adulthood. The subjects were 100 young women, aged 25 to 39 years, and 100 middle-aged and old women, aged 50-65 years. Each of 200 women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cerning their coping responses to a recent stressful life event categorized by herself as either a loss, a threat, or a challenge. Age and situational effect on coping wer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ness, locus of control over the problem occurrence, personal controllability over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and coping behavior were analyzed. Three types of coping functions, active, passive, and magical, based on the Gutmann's Ego Mastery Type were measured. The results revealed that age and situational appraisal had significant effect on coping responses: The older women coped in a more magical way than younger women, especially in loss situations. Regardless of age, most of the women coped in an active way in challenge situations but in a passive or magical way in loss or threat situations. When a situation is appraised as stressful or uncontrollable, the magical way of coping is usually adopted. The sources of stress begin to change with advancing age. However, how the situation is appraised is the most potent factor in determining coping response rather than the source of stress or age per se.